

# 낙승연가



[해제]

<낙승연가>는 “온여적우 진성이씨 유인평산 신씨원서”이라는 내용을 고려해 보면 작자는 ‘진성이씨’로 볼 수 있다. 창작시기는 “무신계유 오월경인 삭십이일”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계유(癸酉)년인 1873년이나 1933년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규방가사 작품이다. 위에서 아래로 죽 이어 쓴 종서(縱書)의 형태이고, 순국문으로 된 필사본이다. 현재 ‘담양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4음보 1행 기준으로 전체 48행의 대체로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

낙승연가

무신계유 오월경인 삭십이일 신축즉평  
온여적우 진성이씨 유인평산 신씨원서  
지일야전 일석경자 사자직히 로조슈향  
문하고일 비박유와 슈합비 품으로  
체유우 영연지전 흐노라 오호  
비부라 차호이실 아거연 금일의  
화용이 초최터니 금연금일의 음용이  
적막하다 차하변이며 차하이야아 네가  
참죽엇난야 쏘이런가 성시런가 만일  
죽고보면 당상빅발 존안얼 누게막겨  
숙슈지공을 봉양하며 너의군즈 사절의복  
씩씩진공 누게 부탁하여 이즐슈가  
바이업고 삼세유아 어미불너 젓차즐제  
누가것히 섯다가셔 젓주어 달닐손야  
늘근어미 허위허위 차자간들 누가압셔  
인도하며 어익온다 손목쥐고 반길손야  
차호이실 아사성이 명슈가 잇다한들  
례명이 그썸인야 어미난 너의형제랄  
길을씨예 톱임티사 덕을가져 고이고이  
길너니여 명문고가 출가씨겨 군자호구  
씩이도야 종사 우선하여 난정곡치  
조흔경과 인봉귀룡 상셔솜과 전강으슈  
하기와 석송의복 녹후물 너으게로  
축원인디 사돈되 총총후덕 자품과  
셔랑의 성덕 관홍함과 니소망은  
일윗난디 난지지 슈라후나 천불은유  
무삼일고 황천이 미워신가 조물리  
시기런가 귀신이 작히런가 네가하마  
이거름이 철윤의도 당치안코 인정인들

가당할야 청춘시절 못다살고 죽난긴들  
오작하며 사라잇난 너이어미 싱식지낙  
잇슬손야 너이일 싱각흐면 일일십이  
시와일연 삼척육십 일이나나 리티우난이  
간장이오 흘으난니 눈물이라 우쥬형산  
비겨잇서 어미셔름 늦길손야 황양낙월  
김흔밤의 두견성도 너의원훈 위로한닷  
황노의 가난자로 알노소견 하루한디  
흐물며 동기귀정 다일너 무엇하라  
어미난 현무랄 다려온후 평싱  
소망을 이뤘슨이 추흐라도 싱각말고  
천디알외 병훈이 알미잇거든 외손농일  
취월장 무명이 잘어나서 외쵸무라  
차자오면 너몬다시 반기도록 무무히도  
으쵸라 셔량은 속속히 속현혀  
현식랄 다려다가 만실화기 융융한이  
어미으쇼 망의실노 다형일다 영여유지  
어던어린 동기일빅 쥬로천천 병결혜신  
한이 반가이 흥향허라 통의통의  
참의참의 상향

[현대역]

낙승연가

무신계유 오월경인 삭십이일 신축즉평  
운여적우 진성이씨 유인평산 신씨원서  
지일야전 일석경자 사자재히 로조수향  
문하고일 배박유와 수합비 품으로  
체유우 영연지전 하노라 오호  
비부라 차호이실 아거연 금일에  
화용1이 초최터니2 금연금일의 음용3이  
적막하다 차하변이며 차하 이야아 네가  
참죽었느냐 꿈이런가 성시런가4 만일  
죽고보면 당상백발 존안5을 누게맡겨6  
속수지공을 봉양하며 너의군자 사절의복  
때때진공 누게 부탁하여 잇을손가  
바이없고 삼세유아 어미불러 젓 찾을 때  
누가 곁에 섰다가서 젓주어 달랠소냐  
늙은 어미 허위허위 찾아간들 누가 앞서  
인도하며 어미온다 손목쥐고 반길소냐  
차호이실 아사성이 명수가 있다한들  
예명이 그뿐이냐 어미는 너의 형제를  
기를 때에 태임태사 덕을 가져 고이고이  
길러내어 명문고가 출가시켜 군자호구  
짜이되어 종사 우선하여 난정곡치  
좋은 경과 인봉귀룡 상서 꿈과 전경으슈  
하기와 석송7의복 녹하물 너에게로  
축원인대 사돈덕 총총후덕 자품과  
사랑의 성덕 관홍8함과 내소망은  
이뤘는데 난지재 수라하나 천불은유  
무삼일고 황천9이 미워신가 조물이  
시기런가 귀신이 작히런가 네가하마  
이거름이 천륜10의도 당치않고 인정인들  
가당할까 청춘시절 못다살고 죽난긴들  
오직하며 살아있는 너의 어미 생세지락11  
있을소냐 너의 일 생각하면 일일십이  
시와 일연 삼백육십 일어나라 이태우나니  
간장이오 흐르나니 눈물이라 우주형산  
비겨있어 어미설음 느낄소냐 황량낙월12

깊은 밤의 두견성13도 너의 원혼 위로한 듯  
황로의 가난자로 알로소견 하루한데  
하물며 동기귀정 다 일러 무엇하랴  
어미는 현무랄 다녀온 후 평생  
소망을 이뤘으니 추호라도 생각말고  
천대알외 병훈이 앓이 있거든 외손농일  
취월장 무명이 자라나서 외조모라  
찾아오면 너본다시 반기도록 무무히도  
으쥌라 서량은 속속히 속현하여  
현세를 다려다가 만실화기 응응하니  
어미으쇼 망의실로 다행일다 영여유지  
어떤 어린 동기일배 주로천천 병결혜신  
하니 반가이 흠향하라 통의통의  
참의참의 상향

[각주]

- 1) 화용(花容) : 꽃처럼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
- 2) 초취터니 : 초취(憔悴)하더니. 병, 근심, 고생 따위로 얼굴이나 몸이 여위고 파리함.
- 3) 음용(音容) : 음모(音貌). 음성과 용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
- 4) 성시런가 : 생시(生時)인가.
- 5) 존안(尊眼) : 남의 안목을 높여 이르는 말.
- 6) 누게말겨 : 누구에게 말겨.
- 7) 석송(石崇) : 중국 서진(西晉)의 부호(富豪)(249~300). 자는 계륜(季倫). 형주(荊州) 자사(刺史)를 지냈고, 항해와 무역으로 거부가 되었음.
- 8) 관홍(寬弘) : 관대함. 마음이 너그럽고 큼.
- 9) 황천(皇天) : 크고 넓은 하늘.
- 10) 천륜(天倫) :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 11) 생세지락(生世之樂) :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재미.
- 12) 낙월(落月) : 지는 달.
- 13) 두견성(杜鵑聲) : 두견의 울음소리.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